泰, 플라스틱 쓰레기 활용 호신불 제작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
나일론 어망 등 활용해 경각심
환경오염 · 불교문화 합일 결과
뒷면엔 '깨달음' 메시지도 담아
수익 전액 자선단체 기부 예정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방콕 외곽의 한 공장에서 비닐봉지, 병뚜껑, 어망등 1kg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호신불.
사진출처=로이터통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호신불이 태국에서 화제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2월 14일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호신불을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은 "태국의 두 지역 회사가 플라스틱 병부터 나일론 어망에 이르는 9가지 종류의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를 재료로 호신불을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구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로 태국의 디자인 회사 '닷츠 디자인 스튜디오'와 '퀄리 디자인'은 방콕 디자인 위크 전시회에서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 호신불'이다. 미국에 본부를 둔 민간환경단체와 미국 해양보전센터 보고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 해양에 플라스틱을 5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추정되고 있다.

닷츠 디자인의 대표 크릿 풋핌은 "플라스틱 호신불 아이디어는 전 세계 해양 오염 문제와 태국 불교문화를 연결한 합일점에서 찾아낸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의 95% 이상이 불자인 태국에서는 각 사찰이나 고승이 제작한 호신불을 소지하거나 차량, 집안에 봉안하는 풍습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호신불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미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수집품으로도 인기가 많다.

퀄리 디자인의 설립자 틸랏차이 숍파메티쿨랏는 "이번 주 출시된 해양 플라스틱 호신불 뒷면에는 태국어로 '깨달음'이 적혀있다. 이는 불교의 진리를 통한 깨달음과 함께 일상의 소비가 환경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메시지"라고 플라스틱 호신불을 설명했다. 사찰에서 정식으로 스님들의 축복을 받은 호신불은 한 개당 최소 1kg 재활용 플라스틱 또는 최소 100바트(한화 약 3700원)로 교환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호신불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료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소셜 미디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전통적으로 태국의 호신불은 뼈, 나무, 금속과 같은 소재로 제작되며 사찰에서 사용한 향의 재나 고승의 가사, 혹은 삭발한 머리칼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한 네티즌은 "의도는 좋으나 버려진 쓰레기로 불상을 만든다는 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많은 불자들이 새로운 시도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플라스틱 호신불 전시회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지고 방문하는 불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시회를 방문한 한 참여자는 "플라스틱 병 1.8kg를 가지고 왔다"며 "이 플라스틱 쓰레기도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하길 바란다"며 프로젝트를 응원했다.

美, 불교미술 통한 심리치료 화제

미국 히말라야 예술학교
파우바 미술 · 명상 교육



네팔 전통 불교미술인 파우바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첼시 비치.
사진출처=더 가제트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네팔 전통불교미술 파우바(paudha) 미술과 이를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화제다. 미국 콜로라도주 지역 신문 '더 가제트'는 2월 20일 불교미술인과 현대적인 심리치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보도했다.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시에 소재한 '히말라야 예술학교(Himalayan art school)'는 파우바 미술을 가르치면서, 이를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센터다. 2018년, 네팔에서 전통 방식으로 파우바 미술을 배운 화가 첼시 비치가 설립한 이곳은 불교미술을 통한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첼시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중 달라이라마가 저술한 사성제 소책자를 접하면서 불교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 네팔과 인도로 떠난 첼시는 네팔에서 파우바 미술 거장 록 치트라칼(Lok Chitrakar)에게 3년간 전통적인 방법으로 불화를 조성하는 방법을 익혔다.

첼시는 "스승인 치트라칼 선생님이 고향인 스프링스에 파우바 예술학교를 설립하도록 격려했다"며 미국에서의 활동 계기를 전했다. 지금까지 첼시는 1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파우바 미술을 가르쳤고 다양한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불화를 심리치료와 접목하게 된 계기에 대해 첼시는 "내게 예술은 명상의 한 형태"라며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더 쉽다. 실제 파우바 불화는 신체의 각 구성요소와 신경경로의 일부를 개방하는 명상용 지도로도 활용된다"고 파우바 예술과 명상이 둘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또 "파우바 미술은 이기적인 자존심이 가득한 서구 미술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파우바 미술은 단순히 불보살을 그려내는 것만이 아닌, 인간의 의식적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각각의 그림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명상의 목적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기에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를 통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첼시는 "예술을 거울로 삼아 스스로를 바로잡고 성장시켜 타인에게도 자비심을 베풀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코로나 종식 · 세계평화 위한 '까규몬람' 법회

티베트 까규파, 음력 정월부터
온라인 생중계…한국어 번역도
'마리지천' 특별기도 함께 봉행



온라인으로 봉행된 까규몬람.
사진출처=까규몬람 공식 유튜브 캡쳐

티베트 불교의 주요 4대 종단 중 하나인 까규파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이 소멸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온라인 기도회 '까규몬람'을 봉행했다. 2월 17일, 까규몬람 사무국은 "17대 까르마빠의 인도 하에 8일간의 까규몬람이 무사히 회향됐다"고 전했다.

까규파는 매년 음력 정월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까규파를 이끄는 지도자인 17대 까르마빠를 법주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법회 '까규몬람'을 봉행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생중계를 이용해 '온라인 까규 몬람'을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도회는 특별히 코로나19의 빠른 소멸을 위해 '마리지천 천공(千供)' 기도를 함께 봉행했다.

온라인 기도회는 2대 까르마빠인 까르마 팍시가 저술한 상사공양(上師供養)기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까규몬람에는 전세계 까규파 사원들과 신도들이 모두 참여했다. 사원들의 경우 이번 온라인 기도회와 함께 각 사원별로도 기도회를 봉행해 기도의 힘을 더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됐고 한국어 통역을 포함해 10개 국어 이상의 통역도 함께했다.

2월 16일 상사공양 기도를 회향하며 기도를 이끈 까르마빠는 "올해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다가야에서 사부대중이 모이지 못했다"며 "그러나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각자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동일한 시간에 같은 목적을 위해 모일 수 있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한 것은 불법의 발전과 일체중생 행복을 위함"이라고 기도 목적을 밝혔다. 까규몬람에서 봉행된 상사공양 기도는 코로나 19의 소멸과 세계평화를 위해 회향됐으며 특별히 최근 입적한 틱낫한 스님과 티베트불교의 지도자인 도둡첸 린뽀체를 위한 회향도 포함됐다.

마지막 날 봉행된 마리지천 천공기도에 앞서 까르마빠는 "마리지천은 티베트, 중국, 일본불교가 모두 공경하는 본존이며 심지어 중국의 도교에서 모시기도 한다"며 "본존은 특히 여러 위험과 재난을 피하는 공덕이 크기에 지금 같은 시국에 마리지천 다라니를 염송한다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도는 코로나19의 신속한 소멸을 위해 까르마빠가 특별히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도에 사용된 〈마리지천다라니경〉은 17대 까르마빠가 여러 판본의 경전을 살펴 새롭게 편역한 것으로, 특히 스리랑카 출신의 역경승 불공삼장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티베트어로 번역해 의미가 있다. 편역된 경전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공개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매몰 위기 고대 보살상 새로운 거처 찾다

연못서 발견된 1t급 보살상
지역주민들 보호운동 펼쳐



연못에서 인양된 석조보살상.
사진출처=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인도 남서부 케랄라 주, 코일란디(Koyilandy) 마을 인근 연못에서 발견된 고대 보살상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나섰다.

인도 매체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2월 18일 보살상과 얽힌 이야기를 보도했다. 코일란디 마을 인근, 멜루르(Melur)지구 연못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고대 석상 한 구가 잠겨있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보살상은 오랫동안 파티칼라판(Pathikalappan) 신상으로 소중히 여겨져 왔다. 주민들은 "40년 전, 관개수로가 놓이기 전까진 매년 여름 연못의 물이 줄면서 성상을 친견하고 불공을 드릴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연못 속에 잠겨있던 석상은 최근 지역당국이 연못을 매립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케랄라주 고고학부서의 담당 하에 연못 밖으로 인양됐다. 고고학자들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석상의 정체가 불교의 보살상으로 밝혀졌다.

높이가 150cm에 달하며 무게는 약 1t으로 화강암 하나가 통째로 조각돼 조성됐다. 수몰에 의한 경미한 마모 외엔 팔다리 장신구나 보관과 같은 장엄들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최근 보살상을 조사한 스리 상카라차리야 대학 불교연구센터의 아제이 세카르 박사는 "9~12세기에 조성되던 양식의 보살상으로 지장보살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양식은 후기 대승불교 일파인 밀교미술의 표현으로 남서인도 곳곳에도 비슷한 양식의 불교유물들이 잔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보살상의 새로운 봉안처를 조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결성, 본래 모셔졌던 연못근처에 모시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의장인 카루나카란 칼라망갈라는 "본래 보살상이 잠겨있던 연못에서 500m 거리에 본래 보살상이 안치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다"며 "지역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본래의 보살상이 모셔져 있던 기단 유적이 남아있다. 보살상은 본래의 자리에 모셔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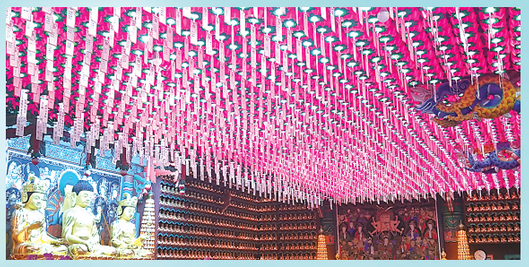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